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영향

서상현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최근 중동지역 정세 동향
2. 이란 및 사우디의 정치·경제 영향
3. 중동시장 비즈니스 환경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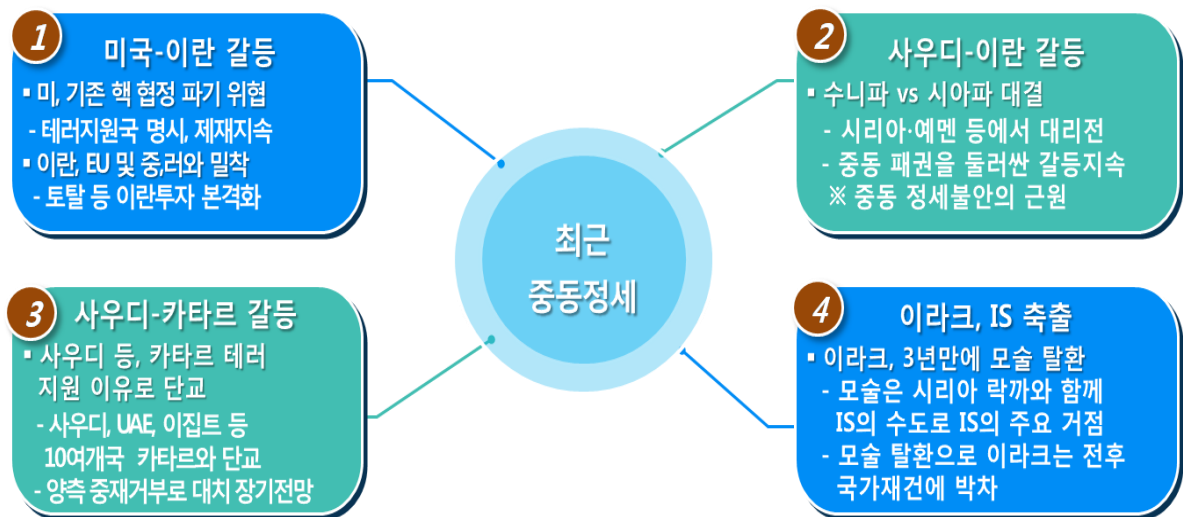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최근 중동정세는 ①미-이란 갈등, ②사우디-이란 갈등, ③사우디-카타르 갈등, ④이라크에서의 IS 축출 등으로 급변하고 있음
 - ① 미-이란 갈등: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불인증’으로 미-이란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핵 협상 파기 가능성도 제기됨
 - ② 사우디-이란 갈등: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이슬람 종파(수니-시아) 간 갈등을 넘어 중동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치열
 - ③ 사우디-카타르 갈등: 사우디, UAE 등 수니파 13개국의 카타르 단교조치로 수니파 내 분열 및 걸프(Gulf) 지역 긴장고조
 - ④ 이라크 IS 축출: IS 수도 모술 탈환 등 이라크 내 IS 퇴출로 이라크의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이 밖에 최근 유가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한 저유가와 중동정세 악화로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 중동정세 급변 속에 이란에서는 로하니 2기 정부가 출범하였고, 사우디에서는 왕세자 교체 이후 왕위계승 관련 국내정치 변동이 예상됨
 - 5월 대선에서 로하니가 재선되면서 이란의 개혁·개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
 - 로하니 1기 정부는 핵 합의에 사활을 건 반면, 2기 정부는 ‘이란의 경제혁명’을 목표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펼칠 전망
 - 사우디는 왕세자 반대세력 숙청, 이란 및 카타르와 단교 등 국내외적으로 정세불안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
 - 신임 모함메드 왕세자는 대이란 강경 정책과 ‘네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 탈에너지 산업정책인 ‘비전 2030’ 실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정세 급변에도 불구하고, 중동시장에서는 향후 탈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건설 등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전망
 - 이라크에서의 IS 격퇴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행에 따른 신사업 기회 포착, 이란에서 F/A 활용을 통한 수주확보 등을 위해 국내기업들의 새로운 중동전략 마련 필요
-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변화로 단기간 내 사업환경 호전 가능성이 낮아 현지 정보 수집 등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사업축소보다는 리스크 해소 이후 시기를 대비, 인적 네트워크 유지는 필요

1. 최근 중동지역 정세 동향

- 최근 중동지역은 시리아·예멘에서 내전 지속, 레바논 내전발생 우려, 쿠르드 독립문제 등 정세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 미국, 터키, 이란, 사우디 등 많은 국가가 개입되면서 복잡한 정치 양상을 보임
 - 예멘에서도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국가들이 정부군을 지원하는 반면, 이란은 시아파 반군을 지원하는 등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 진행 중
- 최근 중동정세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정책, 사우디와 이란 및 카타르의 갈등 등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 협정 ‘불인증’*을 발표하여 이란 핵 협정 폐기를 압박하고 있음
 - *2015년 제정된 이란 핵 합의 검증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불인증할 경우 의회가 60일 내 재부와 여부 결정
 - 사우디는 이란 및 카타르와 단교, 예멘 내전 개입 등을 주도함으로써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최근 중동정세 현황〉



① 미국-이란 갈등 고조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로 미-이란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3일 이란이 핵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란 핵 협정 ‘불인증’을 발표, 이란 핵 협정 유지가 위험에 처하게 됨
- 다만, 미국은 기존 이란 핵 협정 당사국(P5+1)*에서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P5+1: UN 상임이사국(미, 영, 중, 프, 러)+독일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불인증’에 따라 미 의회는 향후 60일 이내 이란에 대한 핵 협정 준수 여부를 논의해야 함**
 - 현재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란 핵 협정 불인증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불인증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공화당 의원은 52석에 불과하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핵 협정 파기에 부정적 입장임
- **미 의회가 ‘불인증’을 승인, 핵 협정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이란은 물론 미국 제외 협상 참여 5개국은 핵 협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함**
 -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란은 EU,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파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고립 심화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미국 내 반발도 거셈

② 사우디-이란 갈등

- **사우디-이란 갈등은 명목상 이슬람 종파(수니-시아) 간 갈등이지만, 최근 두 국가 간 갈등은 중동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의 결과물임**
- **양측은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서 종파 간 대리전을 통해 대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원유감산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우디는 수니파 시리아반군과 예멘정부군에 무기지원을, 이란은 시아파 시리아정부군과 예멘반군에 각각 군사지원을 하고 있음
 - 원유감산 관련, 사우디는 OPEC의 감산합의 이행에 이란의 동참을 촉구하지만, 이란은 제재 이전 수출수준(2.8백만 b/d)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지속적 증산 주장
- **사우디-이란 갈등 격화 이면에는 서방의 제재해제와 IS 격퇴에 따른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사우디의 우려 존재**

- 사우디는 트럼프 당선 이후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방화사건을 빌미로 GCC*국가들이 이란과 단교하도록 주도하여 이란을 외교적으로 견제함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
- 이란은 시리아내전 개입,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 등으로 중동의 정치·경제 주도권을 차지하려 함

〈최근 이란-사우디 주요 갈등 요인〉

이란	갈등 요인	사우디
시리아정부 지지	시리아 내전	현정권 퇴진요구
시아파 후티 반군 지원	예멘 내전	수니파 정부 지원
카타르 적극 지원	카타르 사태	카타르와 단교
원유 증산	저유가 대처	감산→유가 조정

- 사우디는 트럼프 행정부가 對이란 제재를 강화해 이란의 급부상을 막길 원하며 이를 위해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 시 U\$1,100억의 무기 구매 계약 체결
-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사우디-이란 간 갈등 관계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정세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

③ 사우디-카타르 단교사태

□ 사우디-카타르 단교사태로 중동정치 지형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6월 5일 사우디 주도로 아랍 10여 개국이 카타르와 단교 및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걸프(Gulf)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표면적인 단교 이유는 카타르 국왕의 親이란 발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GCC 회원국인 카타르의 독자노선에 대한 불만 누적 때문
 - 카타르는 '95년 이후 사우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경제적으로 등거리외교를 펼쳐왔음
 - 단교와 함께 사우디, UAE, 바레인 등은 카타르로 통하는 자국 육상, 해상, 영공 등의 통과를 봉쇄하였고 군사동맹 관계도 단절함
- 사우디 등은 카타르와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등 13가지 요구조건을 발표

- 그러나 카타르는 자주권 침해라며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있어 단교사태가 장기화될 전망
- 카타르는 이란과 경제관계를, 터키와는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사우디 등과의 대치에 장기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사우디-카타르 갈등은 기존의 이슬람 종파(수니-시아) 간 대결이 아닌 수니파 내부 갈등이라는 점에서 사우디의 중동 패권 장악에 큰 위협 전망
- 사우디-카타르 갈등이 GCC 회원국 결속력 약화 및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와 중동정치 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④ 이슬람국가(IS)의 몰락

□ 이라크군 등 연합군이 IS의 이라크 내 수도였던 모술을 3년 만에 탈환하고 시리아 내 수도였던 락카를 탈환함으로써 IS완전 격퇴

-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의 락카는 IS의 본거지였으며 IS 국가선포의 핵심 지역이었음
- IS는 '14년 6월 29일 이슬람국가를 선포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 IS는 이라크 전쟁 종식 이후 후세인 정부의 군, 경찰 출신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국가'선포는 IS가 최초임
- IS 부상으로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국제전 전개 및 정치불안이 고조되었음
- IS 퇴치를 위해 시리아 및 이라크에 러시아, 미국, 터키, 이란 등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였고 사우디, UAE 등도 직간접적으로 개입
- 그러나 올해 6월 29일 IS 수도인 이라크 모술이, 10월 17일 시리아 락카가 함락되면서 IS의 몰락이 가속화되었음
- IS 몰락으로 이라크는 원유생산 정상화 등을 통해 국가재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약 U\$1,000억을 투입할 예정임
- IS 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인 이란은 이라크 및 시리아, 레바논을 잇는 시아벨트 연결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됨

〈IS 세력 약화에 따른 중동 주요국 정세변화 전망〉

국가	향후 전망
이라크	IS 퇴치로 원유생산 정상화 등 국가재건에 주력
시리아	정부군 및 러시아의 반군에 대한 공세강화 전망
이란	본토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세력권 확보 추진
사우디	왕권강화 및 수니파 단합을 통한 이란 견제 강화

2. 이란 및 사우디의 정치·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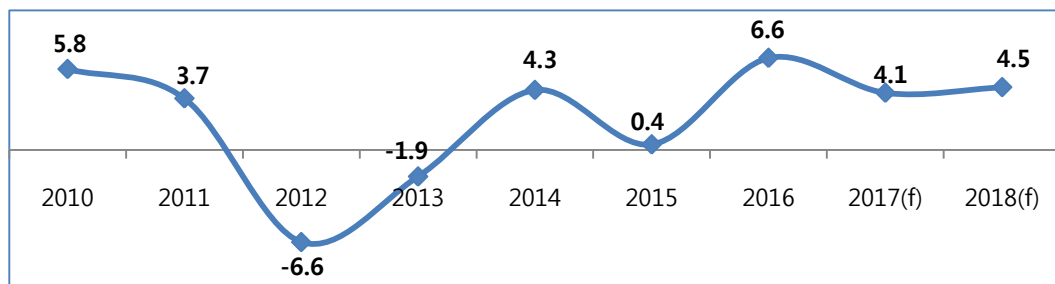
① 이란

□ 지난 5월 대선에서 중도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57%의 득표로 재선, 8월 5일 로하니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음

○ 로하니 1기 정부는 핵 합의에 사활을 건 반면, 2기 정부는 ‘이란의 경제혁명’을 목표로 삼음

- 이란 경제는 '16년 6.6%, '17년 4.1% 성장 전망 등 안정적이며 2020년까지 연 평균 5~6% 성장 전망

〈이란 경제성장 현황 및 전망(%)〉



출처: IMF, 2017

○ 원유생산 및 수출 증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이란의 원유생산은 약 4백만 b/d, 원유 수출은 2.2백만 b/d 수준이며 '21년까지 5.8백만 b/d 생산 및 4백만 b/d 수출을 목표로 함

- 르노는 IDRO*와 합작으로 약 U\$780백만을 투자해 연간 15만 대 규모의 SUV 및 소형세단 공장 건립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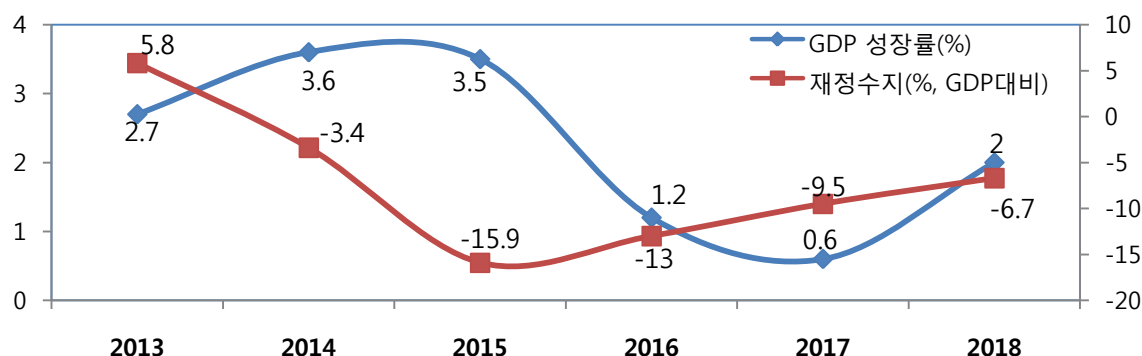
- PSA(푸조·시트로엥) 역시 이란 SAIPA와 각각 50% 지분 투자를 통해 '22년까지 연간 15만 대 자동차 생산 목표로 투자 결정
* IDRO: 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 한국기업들도 수출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체결한 F/A(Framework Agreement)*를 기반으로 이란 진출 재개
 - 수은은 이란 중앙은행과 80억 유로의 F/A를 체결(8월 24일)해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 SK건설, 대우건설, 대림 등은 이란의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여 이란 재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음
 - *F/A: 주로 수입국 정부(중앙은행 등)를 차주로 일정 신용공여한도 및 주요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개별 수출(수주)거래에 간소화된 개별대출계약 체결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운용하는 제도
- 최근 중동정세 변화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정치·군사 영향력 증대 등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증가
 - 특히 사우디-카타르 갈등에 따른 GCC 국가들의 분열, 카타르와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사우디와의 중동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불인증' 발표가 이란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만약 미 의회에서 이란 핵 협정 '불인증'이 통과되면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란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란 진출 시기를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됨

② 사우디

- 사우디는 '17년 1월 이란, 5월 카타르와 단교하는 등 인근 국가들과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빈 살만국왕이 6월 장남 모함메드 빈 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함으로써 권력 공고화 및 안정적 세습체계를 구축함
 - 그러나 신임 왕세자의 반대세력 축출을 통한 권력강화와 예멘전쟁, 카타르와 단교 등 국내외 정세혼란 지속으로 일부 왕실 인사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불만 해소와 모함메드 왕세자의 권력 강화를 위해 현 국왕의 왕위를 왕세자에게 이양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기됨
- 사우디 경제는 저유가 지속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17년 0.6% 성장에 그치는 등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석유 부문은 유가의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감산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올해 -0.3% 성장이 예상되며, 비석유 부문은 1.7% 성장 전망(IMF, 2017)
- 재정수지는 '16년 -13% 대비 소폭 개선된 -9.5%가 예상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등이 취소 혹은 지연되고 있음

〈사우디 경제현황과 전망〉



출처: World Bank, 2017

- 사우디는 정치·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왕세자 모함메드 주도로 탈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비전 2030'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저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U\$5,000억을 투입하는 '네옴' 신도시 건설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아람코 기업공개로 통한 재원 마련과 자동차, 철강, 관광, 의료 등 비석유 부문의 사업 강화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우디정부는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사우디 최초 U\$175억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고, '18년부터 VAT를 도입할 예정임

3. 중동시장 비즈니스 환경 영향

- 최근 유가하락, 분쟁지속 등 중동정세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탈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강화로 국내기업들의 중동진출 기회요인도 높은 상황

- 특히 이란과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국가 재건에 따라 자동차, 철강, 건설 등 사업기회가 많아 기업 차원의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 이란 및 사우디의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육성 정책 참여 검토
 - 사우디, 이란, 이라크의 신도시 건설과 호텔 및 병원 관련 사업 진출
 - 이 밖에 이라크에서의 IS 격퇴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행에 따른 신사업 기회 포착, 이란에서 F/A 활용을 통한 수주확보 등의 기회 모색도 가능
-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급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일부 사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중동정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최근 트럼프의 핵 협정 불인증에 따른 미국-이란 갈등고조는 이란에서의 사업 수행에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이란 간 갈등 이외 저유가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감소 및 지연도 영향을 미침
 - 특히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 사업 및 시장개척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중동정세 급변에 의한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무역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중점
 - 대규모 사업 투자 대신 기술협력 등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함
 - 또한 사업 정체에 따라 중동 인력을 축소하기보다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리스크 해소 이후 시기를 대비해야 함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홈페이지]

IMF,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 2017

World Bank, “<http://pubdocs.worldbank.org/en/842851507055188615/MEM-Oct-2017-SaudiArabia-ENG.pdf>”, 2017

[언론]

김열매, “이란 대선과 협상의 기술 -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까?”, *Issue Report : 글로벌 전략*, 유진투자증권, 2017.5.10

심혜진, “사우디-카타르 국교단절 - 국제유가 영향 제한적”, *Global Market Economics*, 삼성증권, 2017.6.7

인남식, “대카타르 단교 사태에 따른 걸프 역학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17.7.14

인남식,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확산의 불안과 전조”,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17.6.23